

미래 세대에 전하는 '오월 정신'

12일 광주극장서 '좋은 빛, 좋은 공기' 청소년 위한 무료상영회 영화출연 총상 피해자 이민오 씨 후원 "광주학생들 많이 봤으면" 오월 광주와 아르헨티나 민주화 조명...임흥순 감독과 대화 시간도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생각할까. 평범했던 시민들을 움직이고, 깨닫게 하고, 투쟁하게 했던 국가 폭력의 기억은 이제 시대를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있다.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 5·18 주제의 영화를 상영하는 '나눔상영회'도 그 중 하나다.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 제작진은 오는 12일 오후 3시 광주극장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무료 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나눔상영회'는 미래 세대에 5·18 민주화 운동의 올바른 사실과 의미를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또 5·18과 광주의 오월 정신을 현대를 살아가고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고, 세대를 초월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나눔상영회는 '좋은 빛, 좋은 공기'에 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역으로 출연해 80년 5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하는 외과의사 이민오 씨의 후원으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그는 '광주의 학생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이유에서 후원을 결심했다.

김 감독은 영화 제작 당시 5·18 피해자인 이 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다가 이 씨의 사연을 듣고 영화에 캐스팅했다. 1980년 조선대학교 의대생이던 이 씨는 5월 18일 금남로를 걷던 중 계엄군에게 붙잡혔고 군화에 수차례 배를 짓밟혀 허벅지 파열돼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국군통합병원에서 오랜 수술 끝에 살아난 그는 이후 사명감으로 광주시 동구 계림동에 이민오 외과의원을 열고 수십 년째 총상피해자를 치료해오고 있다.

이 씨는 "5·18을 왜곡하는 가짜뉴스가 많은데, 5·18이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한다"며 "많은 분들이 민주화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나눔상영회를 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이같이 의미있는 일에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좋은 빛, 좋은 공기'는 지난 2015년 다큐멘터리 '위로공간'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은사자상을 수상한 임흥순 감독의 작품으로, 광주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과거와 현재를 추적해 전 세계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학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전한다.

1980년 5월 18일, '좋은 빛(光州, Good Light)'이라는 뜻인 '광주'의 시민들이 신군부 세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을 당하고 있을 때, '좋은 공기



이민오 외과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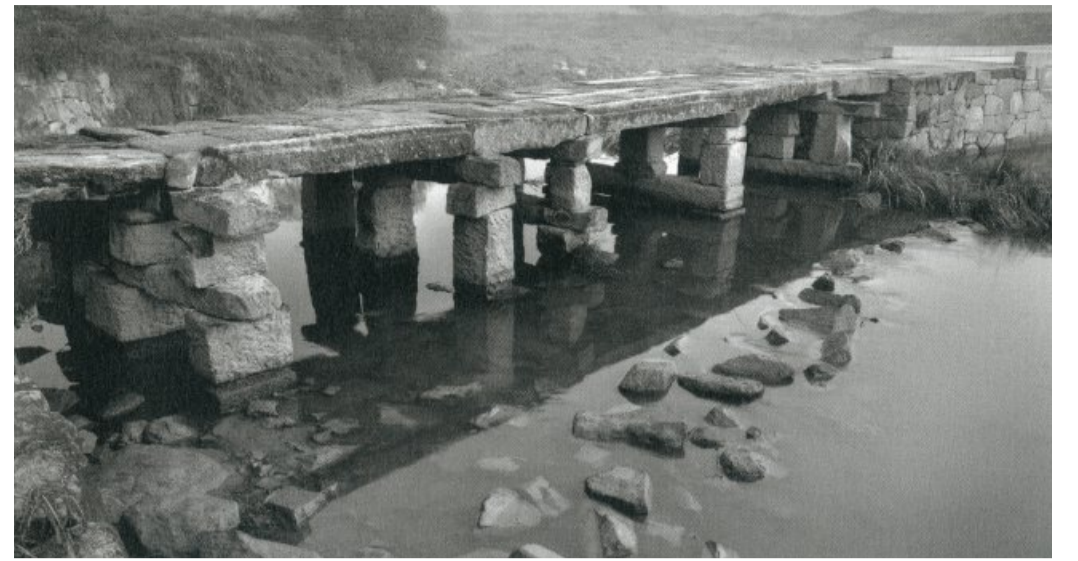
(Buenos Aires, Good Air)'라는 뜻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국가 권력 또한 그곳의 시민들을 실종자로 만들었다.

영화는 5월 18일을 기억하는 이들의 기록과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남겨진 이들의 증언을 통해 국가 권력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상처와 고통, 죽음 등이 오늘날 우리 일상 안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탐구한다.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임흥순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되며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을 지참한 관객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임흥순 감독이 제작한 영화 '좋은 빛, 좋은 공기'의 한 장면.



1274년 건립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함평 '고막원 석교' (보물1372호)

'돌의 형상'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

오상조 초대전, 7월 25일까지 화순 천불천탑사지문화관

'돌이 품은 관조의 세계.'

오랫동안 남도의 원형을 앵글에 담아 온 오상조 작가는 1983년 향토 유물과 유적을 촬영하며 남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그가 포착한 화면 속에는 사라져 가는 풍경과 우리 삶의 모습이 오롯이 담겼고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화순 천불천탑사지문화관이 개관 4주년 기념 오상조 작가 기획초대전 오는 7월25일까지 개최한다. 오 작가는 화순과 인연이 깊다. 화순 군민으로 오랫동안 작업한 '운주사', '당산나무' 시리즈 중 120점을 화순군에 무상기증한 그는 천불천탑사지문화관의 명예관장이기도 하다.

'돌의 형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오 작가의 대표작 시리즈인 '운주사', '당산나무', '남도사람들'의 맥을 잇는 사진전이다.

이번 기획전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50여점의 사진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991~2020년까지 촬영한 작품 중 선별한 것으로 모두 흑백사진이다. 그의 앵글은 돌에 담긴 선조들의 삶과 정취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석장승, 남근석, 매향비,

돌부처, 고인돌 같은 인간의 역원이 표상된 돌들과 돌다리, 석성, 선돌, 정자 같은 삶의 근간이었던 오브제들이 담겼다.

전시에서는 의미있는 문화재를 만날 수 있다. '백제의 미소'로 유명한 충남 서산의 '마애여래삼존불상' (국보 84호), 화순 쌍봉사 '철갑선사부도탑' (국보 57호), 나주 미륵사 '석조여래입상' (보물 462호), 1274년 건립된 가장 오래된 다리인 함평 '고막원 석교' (보물 1372호), 강진 '병영성 홍교' (유형문화재 제129호), 보성 '별신당' (전남도 문화재 제34호) 등이 눈길을 끈다.

그밖에 화순, 함평 등에 산재한 고인돌과 강진과 완도 어서도의 소박한 돌담길, 아름다운 성벽과 곧게 뻗은 나무가 어우러진 강진 병영성 풍경, 평화로운 소쇄원 풍경 등도 만날 수 있다.

오 작가는 광주 최초로 대학(광주대)에 사진학과를 만들고 30여년간 교수로 재직하며 제자들과 함께 남도의 여러 지역을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 다큐멘터리 사진집 '보길도', '화순', '장성', '광주광역시 남구' 등을 출간하기도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준태 시 '5월 광주는...' 일본 신문 게재

'아카하타' 6월2일자 문화면...5·18 41주년 기념 평화 메시지

해남 출신 김준태 시인이 5·18광주민주화항쟁 41주년을 맞아 남북분단의 평화 메시지를 주제로 한 시 '5월 광주는...'이 일본 진보언론 '아카하타' 6월 2일자에 실렸다.

김정훈 전남과학대 교수에 따르면 김 시인이 시를 쓴 것은 지난 5월 21일. 김 교수는 당일 시를 건네받아 즉시 번역해 지난 2019년 김 시인 관련 평론을 '시와 사상'에 게재한 일본의 사회파 시인 사가와 아키 씨에게 건넸다. 사가와 시인의 중개로 아카하타 문화면에 수록된 것.

"오월 그날이 오면/ 광주는 내 고향 어머니/ 나를 짝꿍 꺼안아 줘나/ 하늘에서 날개를 달아준/ 펄리컨 새처럼 노래합니다// 오월 그날이 오면/ 서로가 서로를 반짝여주는/ 별들의 고향 서로가 서로를/ 꽃피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는 첫사랑처럼 다가옵니다..."

시 '5월 광주는...'는 종교와 국경을 초월한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인이 지향하는 것은 남북통일로,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모두 그것에 수렴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김 교수는 아카하타 문화부로부터 일본 독자를 위한 시 소개를 의뢰받아 작성한 글에서 "5·18광주항쟁 41주년을 맞아 김준태에게 광주는 어떻게 비칠까? 김준태에게 '5월 광주는'는 '영원한 청춘의 도시'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전남교 교사였던 김 시인은 1980년 5월 광주항쟁이 끝나고 6월 광주일보 전신 전남매일 1면에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를 게재했다가 강제 해직당하는 등 고초를 겪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

연간집 '봄이오나봐' 출간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회장 김목)에서 발행하는 연간집 '봄이오나봐' (제32)가 나왔다. 이번 연간집에는 동시, 동화, 평론 등 회원들의 아동문학 관련 작품들이 수록돼 있다. 동시에는 조영일·조옥복·조화련·차상영·최정웅 시인 등의 작품과 동화에는 김용국·박상희·박성자·배대인·안영옥·양정숙·정소영 작가 등의 동화가 실렸다. 평론에는 조청수·김관식 작가의 작품이 담겼다.

이번에 연간집에는 지난 1년간의 다양한 활동과 문학기행을 모은 '사진으로 보는 광주전남아동문학인회'를 비롯해 아동인회 연혁, 편집 후기 등도 수록돼 있다.

한편 김목 회장은 '어린이와 아동문학'이라는 발간사에서 "세상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어린이가 있을 것이고, 그 어린이가 자라서 이 세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이어갈 어린이를 위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라고 발간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스페인 음악여행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광주시향 연주회 7월 8일 문예회관...기타리스트 박규희 출연

무더운 여름, 스페인으로 음악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광주시립교향악단 GSO 오티움 콘서트 IV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7월 8일 목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1일 2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티켓 예매는 7일부터 시작했다.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자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의 해설과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를 비롯 국내외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주목 받고 있는 지휘자 최정우가 함께한다.

공연은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으로 시작한다. 이어 스페인 작곡가 호아킨 로드리고의 대표작 '아랑훼즈 기타 협주곡(기타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과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스페인 기상곡'을 연주한다. 이 작품들은 활기찬 에너지와 생기 넘치는 에스파냐 주제가 특징이다. 특히 '아랑훼즈 기타협주곡'은 기타와 관현악이 엮어내는 스페인의 열정과 풍부한 색채를 다양하게 표현한 명곡으로 손꼽힌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는 3세에 기타를 시작해 예원학교와 일본 도쿄음악대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스페인 알리칸테 음악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금까지 알함브라 콩쿠르 포



기타리스트 박규희

함, 아홉 번의 국제 콩쿠르 우승을 기록했다. 지휘자 최정우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 경기필하모닉 등을 지휘했고, 최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마스터클래스에 발탁돼 마르쿠스 슈텐츠에게 지도받았다. 티켓 전석 1만원. 문의 062-524-5086.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